

내집단과 개인의 수행 환류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덕웅 · 장은영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내집단 및 개인의 수행에 관한 정보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혹은 집단의 수행 수준에 관한 정보 가운데 자주 접한 특출한 정보가 덜 접한 정보보다 자기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집단의 수행 수준에 관한 정보를 자주 접한 조건에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상호작용 가설을 검증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가설로 제시한 삼원 상호작용이 지지되었다. 먼저 내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집단이 저조한 조건보다 우수한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또한 우수한 집단에서는 개인이 우수한 조건과 개인이 저조한 조건간에 자기평가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지만, 저조한 집단에서는 개인이 저조한 조건보다 개인이 우수한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더 좋았다. 특히 저조한 집단에서 개인이 우수할 때보다 우수한 집단에서 개인이 우수할 때 자기평가가 더 좋았다. 그리고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우수한 집단에서 개인이 저조한 조건보다 우수한 집단에서 개인이 우수한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더 높았으며, 저조한 집단에서 개인이 저조한 조건보다 저조한 집단에서 개인이 우수한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이 결과로부터 한국 문화에서 개인보다 내집단의 수행 수준이 자기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부가적으로 각 조건에서 자기정서 경험을 알아보았다.

주제어: 사회비교, 개인수행, 내집단수행, 자기평가, 자기정서

인간이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비교하는 현상에 관해서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비교하게 되는 타인이 자신보다 우수하거나, 유사하거나 혹은 못한 수준에 따라서 사회비교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나 비교 대상의 선정이 달라지는 현상을 다루기도 한다(한덕웅, 1999; 한덕웅 · 장은영, 1999; 장은영 · 한덕웅, 1999). 본 연구에서는 대인간의 사회비교뿐만 아니라 집단간 비교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달라지는 현상을 다루고자 한다.

인간이 자기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사회비교의 정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집된다. 지금까지 서구 문

화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타인과 직접이거나 묵시적으로 사회비교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대인간의 비교 정보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사회비교 과정에서 개인이 타인의 수행과 개인 수준에서 비교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내는데 연구가 집중되었다(Morse & Gergen, 1970). 이 방향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때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향 비교하면 자기평가는 낮아지고 하향 비교하면 자기평가가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Taylor, Wayment, & Carillo, 1993). 그러나 사회비교로 인해서 초래되는 자기평가는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집단 수준의 집단간 비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공한 집단에서 상위 수준으로 좋은 수행을 보인 사람과 실패한 집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위 수준의 좋은 수행을 보인 사람은 개인의 수행 정보로 볼 때 모두 집단 내에서 잘 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또한 성공한 집단에서 하위에 속한 사람과 실패한 집단에서 하위에 속한 사람은 개인의 수행 정보가 집단 내에서 매우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개인 수행에 관한 정보가 이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는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개인이 속한 집단의 수행 자체가 서로 다른 수준인 경우에 개인은 집단 내에서 자신이 보인 수행 정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수행 수준에 관한 환류(feedback)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행 수준에 관한 정보의 환류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이 속한 집단의 수준이 개인 수행의 지각이나 정서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최초 연구로는 Davis (1966)의 보고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좋은 학교 혹은 좋지 못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 지각, 학점 평균, 직업적 소망 및 SAT에 관한 자료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SAT 점수를 통제하더라도 자신의 학업능력 지각 및 직업적 소망은 학교의 수준과 각각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했다. 다시 말해서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개인으로는 능력의 절대적 수준이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주관적으로 지각한 자신의 수행 수준이 더 낮았다(McFarland와 Buehler, 1995에서 재인용, 1055쪽).

한편 March(1987)는 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보인 SAT 점수 평균에 의해서 학교의 수준을 나눈 후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좋지 못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니는 학업 자기개념을 지능에 대한 지각과 독서 능력 등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SAT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 학생들을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좋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자기개념이 더 낮았다(McFarland와 Buehler, 1995에서 재인용, 1056쪽).

앞에서 제시한 두 연구는 개인의 수행 수준은 동일하더라도 수행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수행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한 개인이 더 호의적으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연구에서는 우수한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내집단 성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집단내 과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에서는 비록 우수한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 집단간 비교 과정은 경험하지 못한 채 단지 내집단 성원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만 초점을 둔 셈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집단이 우수하거나 열등하다는 정보와 개인의 수행 정보로 자기 평가가 달라지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비교 과정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집단내 비교 과정으로 자기평가 현상을 다룬 이전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개인의 수행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집단내 비교와 달리 집단간 비교가 활성화되면 내집단에 동일시하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집단의 수행 수준을 준거로 자기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집단간 비교 상황에서는 내집단 수행 수준이 낮을 때보다 내집단 수행 수준이 높을 때 자기평가가 더 높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이른바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외집단과 비교되는 내집단의 특징에 따라서 자기를 정의하는 현상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연구들(Davis, 1966; March, 1987)을 보면 개인의 수행 수준은 동등하지만 집단 수행 수준이 서로 다른 조건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수행 수준에 관한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조건에서 자기와 집단의 수행 수준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자기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실패한 집단에서 자신이 수행 수준이 높은 사람과 성공한 집단에서 자신의 수행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기평가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이처럼 개인과 내집단의 수행 수준에 관해서 불일치하는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알아본 연구로는 McFarland와 Buehler(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평가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수행과 아울러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들은 사람들이 수행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행이 높거나 낮다는 정보를 받았다. 다음으로 개인의 수행 수준에 관한 정보를 주었다. 즉, 피험자의 반수에게는 자신은 잘했고 집단은 못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나머지 반수에게는 자신은 못했고 집단은 잘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 수행에 대한 반응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집합적 자존감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성공적이지 못한 집단에 있으면서 개인의 수행이 좋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집단에 있으면서 개인의 수행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McFarland와 Buehler(1995)는 이러한 현상을 우물안 개구리(frog-pond 또는 big-fish-little-pond) 효과라고 제안하였다. 이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내집단이 뛰어난 경우에 개인이 내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부정적 경험을 하고, 내집단이 우수하지 못한 경우에 개인은 내집단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경향은 개인이 지니는 집합적 자존감 수준에 따라서 달라졌다. 즉 개인이 지니는 집합적 자존감이 높은 이들은 집단이 수행을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더 낮았다. 그러나 개인이 지니는 집합적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집단이 수행을 잘했거나 못했거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연구 1, 2).

이 연구는 수행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보다 수행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이 자기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우수한 집단에서 내집단 성원과 자신을 비교하는 집단내 과정만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록 우수한 집단에 속해 있었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 과정 없이 단지 내집단 성원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만 경험한 셈이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 우수하거나 열등하다는 정보를 주는 조건이더라도 집단내 비교 과정과 달리 집단간 비교 과정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내집단에서 개인의 수행을 비교하는 경우는 개인정체화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범주에 의해서 사회정체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비교하는 집단간 사회비교 과정이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구분해보면 개인이 속해 있는 내집단과 비교할 때 개인의 수행 수준이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내집단을 외집단과 비교한 결과에 의해서 자기평가나 정서경험이 달라지기도 한다.

현재까지 사회비교 과정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집단간 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정체화된 조건에서 집단간 사회비교를 통해서 자기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룬 연구들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화된 조건에서 집단간 사회비교가 활성화되도록 집단의 수행 정보를 특출하게 만들어 주면 개인정체화가 이루어진 대인비교 조건과 비교해서 자기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수행 수준에 관한 정보를 받더라도 집단간 비교 정보가 반복해서 제공되어 특출하게 활성화되면 내집단의 수행 수준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서는 내집단 수행 수준이 낮을 때보다 내집단 수행 수준이 높을 때 자기평가가 더 높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집단간 비교가 우세하게 활성화되면 자신의 개인 수행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에 더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수성 정보가 큰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우수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우물안 개구리 효과는 집단간 비교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내집단의 우수한 성원과 자신을 비교하는 집단내 비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McFarland와 Buehler(1995)의 연구는 주로 자신의 수행과 집단의 수행이 불일치하는 조건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수행과 집단의 수행이 일치하는 조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자신도 잘하고 집단도 잘하는 경우와 자신도 못하고 집단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과 집단의 수행이 불일치하는 조건에서 얻은 결과가 개인의 반응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조건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

른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속변인의 측정 치로서 평가 정보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을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자기평가의 수준에 관해서는 간접적인 추론 단서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비교 상황에서 자기평가 수준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예측한다. 성공한 집단에서 개인의 수행이 상위 수준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우수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집단의 우수성에 관한 정보 역시 자기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실패한 집단에서 개인의 수행이 하위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하게 된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집단의 수행 수준 역시 낮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원들이 워낙 뛰어나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 수행 수준이 낮게 평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화된 상황에서 개인 수행 정보와 집단 수행 정보를 모두 받고 집단내 비교 및 집단간 비교가 모두 가능한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데 관심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 정보가 모두 가능하더라도 두 정보 중 어느 하나에 더 관심을 두거나 개인적으로 두 정보 중 한 정보를 더 중요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단간 경쟁이 치열해서 집단 수행 정보를 더 중요시할 수도 있고, 개인의 저조한 수행은 무시한 채 집단의 우수한 수행에만 매달릴 수도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개인 및 집단 수행 정보가 고르게 주어지는 상황보다 어느 한 정보를 더 빨리 혹은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더 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개인 및 집단 수행 정보들 가운데 한 정보에 더 초점을 두게 되는 상황에서 자기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 두 정보 중 어느 한 정보가 제시되는 회수가 많으면서 최초 정보의 효과와 최종 정보의 효과가 특출해지는 상황으로 조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수행 정보가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 두 정보 중 특출한 정보에 따라서 집단내 및 집단간 비교가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기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선행 연구

들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행 정보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행 정보가 자기평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정보의 특출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수행 정보와 집단의 수행 정보가 모두 가능한 조건에서 집단의 수행 정보가 더 특출한 조건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이 조건에서는 자신은 학업능력이 상당히 낮다는 정보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전체 학업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정보를 모두 들었지만 학교의 학업능력에 더 초점을 둔 상황에 해당한다. 이 조건에서는 개인 정체성보다 집단 정체성이 특출해지므로 집단내 비교보다 집단간 비교에 관한 정보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집단내 비교뿐만 아니라 집단간 비교가 활성화되므로 집단 수행 정보가 자기를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로 인해서 이전 연구(Davis, 1966; March, 1987)에서 예측되는 바와 달리 집단이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자기평가가 더 높다고 예언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이 성공했을 때 개인의 수행 수준이 저조하더라도 집단 수행 정보를 자기를 평가하는데 주로 고려하게 되므로 집단이 성공하고 개인이 우수한 조건과 집단이 성공하고 개인이 저조한 조건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집단이 실패하면서 개인 수행 수준이 저조하다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원들이 뛰어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수행 수준만 낮게 평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개인 수행 수준이 우수할 때보다 자기평가가 더 낮아지게 된다. 또한 우물안 개구리 효과에서 예측되는 바와 상반되게 집단이 실패했으나 개인 수행 수준이 우수할 경우보다 집단이 성공했을 때 개인 수행 수준이 우수하면 자기평가가 더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수행 정보와 집단의 수행 정보가 모두 사용되는 조건에서 개인의 수행 정보가 더 특출한 조건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자신의 학업능력이 상당히 낮다는 정보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전체 학업능력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정보를 모두 들었지만 두 정보들 가운데 자신의 학업능력에 더 초점을 둔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한다. 이 조건에서는 집단정체성보다 개인 정체성이 특출해지므로 집단간 비교보다 집단내 비교의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수행 정보가 특출하여 자기평가가 집단내 비교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집단 수행 정보가 성공 혹은 실패로 주어지는 두 조건에서 모두 개인 수행 정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성공한 집단에서 저조한 사람보다 성공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의 자기평가가 더 높을 것이다. 반면에 집단이 실패했을 때 개인 수행 수준이 실패한 집단에서 저조한 사람보다 실패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의 자기평가가 더 높을 것이다. 또한 이 조건에서도 비록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하여 집단간 비교보다 집단내 비교가 더 활성화되지만, 집단간 비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물안 개구리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가 내집단의 수행 수준, 자신의 수행 수준 및 수행 정보의 특출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논리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는 가설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집단이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자기평가가 더 높을 것이다(가설 I-1). 그리고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성공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과 성공한 집단에서 저조한 사람의 자기평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실패한 집단에서 저조한 사람보다 실패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의 자기평가가 더 높을 것이다(가설 I-2). 또한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실패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보다 성공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의 자기평가가 더 높을 것이다(가설 I-3).

반면에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성공한 집단에서 저조한 사람보다 성공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의 자기평가가 더 높고, 성공한 집단에서 저조한 사람보다 실패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의 자기평가가 더 높을 것이다(가설 II).

방 법

실험 절차

피험자들은 3명씩 함께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문을 읽으면서 진행되었는

데, 컴퓨터 사이에 칸막이를 두어서 피험자는 다른 사람의 화면을 볼 수 없었다. 피험자들이 모두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집단 상황에서 지각유형과 지각능력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소개한 후 피험자들은 먼저 자신의 지각유형을 알아보게 된다고 들었다. 화면에 그림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그 그림에서 푸른 빛깔의 점이 몇 개나 있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5가지 선택지 중에서 서로 달리 하나를 선택하게 되지만, 실험자로부터 자신의 지각유형이 C형에 해당한다고 듣게 된다. 그 다음으로 피험자들은 지각능력검사를 받았다. 피험자들에게 이 검사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글자, 낱자, 그림 및 숫자 등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검사라고 알려주었다. 지각능력검사의 연습 시행을 1분간 실시한 후 본시행을 3분씩 세번 수행하였다. 각 본시행이 끝날 때마다 수행 수준에 관한 환류 정보를 주었다. **내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세 번의 본 시행에 대해서 집단 수행 수준의 환류, 개인 수행 수준의 환류, 집단 수행 수준의 환류의 순서로 환류 정보를 주었다.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세 번의 본 시행에 대해서 개인 수행 수준의 환류, 집단 수행 수준의 환류, 개인 수행 수준의 환류의 순서로 환류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각각의 집단 및 개인의 수행 수준에 관한 환류를 줄 때 지각능력검사의 점수의 수준을 달리하여 환류의 성공 또는 실패를 조작하였다. 끝으로 종속변인으로는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지각능력을 백분위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조작점점 문항과 부가적 종속치에 응답하였다.

피험자

'심리학개론'을 교양강좌로 수강하는 성균관대학교의 학생 120명을 8조건에 15명씩 무선할당하였다.

실험설계

2(수행 정보의 특출성: 개인 정보가 특출함/집단 정보가 특출함)×2(내집단의 수행 환류: 집단성공/집단실패)×2(개인의 수행 환류: 개인우수/개인저조)의 완전무선 설계를 사용했다.

실험 과제

지각능력검사는 장은영·한덕웅(1999)의 연구에서 제작된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지각능력검사에서 한 쌍의 그림판들이 짝지어져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후 두 그림판이 같다고 생각되면�판에서 알파벳 'O'를 누르고, 다르다고 생각되면 알파벳 'X'를 눌러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연습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 지각능력검사의 점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응답한 개수, 반응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한 개수를 고려하여 산출된다고 피험자들에게 설명하였다.

독립변인의 조작

내집단 수행 결과의 환류: 내집단 수행 수준의 환류는 피험자 자신과 지각유형이 동일한 사람들이 지각유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각능력 점수를 얻었는지 알려주는 방법으로 조작하였다. 성공조건에서는 지각유형이 C형인 사람들은 A, B, D 및 E형인 사람들과 달리 상위 20%(19, 20 혹은 21중에 하나를 차례대로 피험자에게 제시)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얻어서 지각능력이 우수한 편이라고 알려주었다. 실패조건에서는 지각유형이 C형인 사람들은 A, B, D 및 E형인 사람들에 비해서 하위 20%(19, 20 혹은 21중에 하나를 차례대로 피험자에게 제시)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를 얻어서 지각능력이 저조한 편이라고 알려주었다.

개인 수행 결과의 환류: 개인별 수행의 환류는 학생 개인이 과제를 수행할 때 얻은 실제 수행과 상관없이 실험 조건에 따라서 백분위로 제시했다. 피험자들에게 자신과 지각유형이 동일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지각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각능력 점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조작하였다. 우수조건에서는 지각유형이 C형인 사람들에 비해서 피험자는 상위 20%(19, 20 혹은 21중에 하나를 차례대로 피험자에게 제시)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얻어서 지각능력이 우수한 편이라고 알려주었다. 저조조건에서는 지각유형이 C형인 사람들에 비해서 피험자는 하위 20%(19, 20 혹은 21중에 하나를 차례대로 피험자에게 제시)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를 얻어서 지각능력이 저조한 편이라고 알려주었다.

개인 혹은 집단 수행 정보의 특출성: 수행 정보의 특출성은 세 번의 본시행에서 개인의 수행 환류와 집단의 수행 환류가 제시되는 횟수를 달리해서 조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전체 3회 환류를 제공할 때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에 걸쳐서 집단의 수행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에 한번 개인 수행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전체 3회 환류를 제공할 때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에 걸쳐서 개인의 수행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에 한번 집단 수행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출성을 조작한 근거는 수행 정보의 제공 회수뿐만 아니라 최초정보효과(primacy effect)와 최종정보효과(recency effect)를 모두 높이면 특출성이 높아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수행 환류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개인의 수행 환류, 집단의 수행 환류 및 개인의 수행 환류 순서로 백분위 점수를 알려주었다. 집단의 수행 환류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집단의 수행 환류, 개인의 수행 환류 및 집단의 수행 환류 순서로 백분위 점수를 알려주었다.

종속변인의 측정

자기평가: 피험자들의 자기평가는 다음 세 문항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의 지각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은 이 질문에 0부터 100까지 숫자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된다. 이 자기평가 측정치들이 한 요인으로 구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A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공통변량의 초기값을 중다상관자승(SMC)으로 하는 주축분해법으로 얻었다.

최종적으로 3개 문항들로 요인분석 한 결과에 따라서 이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앞서 실시한 검사를 전체 대학생들이 받게 된다면 당신은 100명 중 몇 등쯤 된다고 생각합니까(.98), 당신은 앞선 지각능력 검사에서 100명 중 자신보다 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92), 당신은 앞선 지각능력 검사에서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자신은 몇 등쯤 된다고 생각합니까(.90)'이었다. 자기평가를 측정하는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산출하였는데 0.95이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얻은 구성개념이 실

제 자료에 잘 부합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초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표준부합치(NFI) 및 표준화하지 않은 부합치(NNFI)는 좋은 부합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0.90보다 높아서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었고, RMR도 0.01이었다(GFI = 0.99, AGFI = 0.99, NFI = 0.98, NNFI = 0.98, RMR = 0.01). 따라서 이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높은 수렴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자기평가를 측정하는 종속변인 측정치는 이 3개 질문의 각 평정치들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평가가 우수함을 의미하도록 역산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자기평가 측정치의 범위는 0부터 100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평가가 좋음을 의미한다.

자기정서의 경험: 참고로 내집단의 성공과 실패, 개인의 성공과 실패 및 수행 정보의 특출성에 따라 자기정서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기정서의 경험은 자기평가 후에 측정하였으므로 반응 순서에 따른 효과 때문에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 자기정서는 강혜자와 한덕웅(2000) 연구에서 얻은 자기정서의 측정치들 가운데 초조정서(긴장되다/걱정스럽다/불안하다/두렵다/안절부절못하다/초조하다)와 낙담정서(무기력하다/불만스럽다/슬프다/실망스럽다/우울하다/의기소침하다) 및 정적정서(활기차다/희망적이다/편안하다/기쁘다/안심되다/만족스럽다/안정감/안도감)를 얼마나 느끼는지 그 정도를 9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서 측정하였다. 이 정서가 세 요인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A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공통변량의 초기값을 중다상관자승(SMC)으로 하는 주축분해법으로 얻었다.

그 결과 세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분석 한 결과에 따라서 초조정서 용어들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긴장되다(.66), 걱정스럽다(0.51), 불안하다(0.72), 두렵다(0.76), 안절부절못하다(0.90), 초조하다(0.71)'이었다. 이 여섯 문항들이 본 연구의 초조정서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측정치로 사용된 이 초조정서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산출하였는데 0.89이었다. 이를 근거로 6개 초조정서의 평정치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는데, 점

수가 높을수록 초조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낙담정서 용어들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슬프다(.75), 우울하다(0.73), 불만스럽다(0.69), 의기소침하다(0.67), 무기력하다(0.57), 실망스럽다(0.44)'이었다. 이 여섯 문항들이 본 연구의 낙담정서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측정치로 사용된 이 낙담정서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산출하였는데 0.85이었다. 이를 근거로 6개 낙담정서의 평정치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낙담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적정서 용어들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활기차다(.67), 희망적이다(.68), 편안하다(.64), 기쁘다(.76), 안심되다(.65), 만족스럽다(.75), 안정감(.65), 안도감(.64)'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여덟 문항들이 정적정서의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이 정적정서 측정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산출하였는데 0.90이었다. 이를 근거로 8개 정적정서의 평정치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정적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 과

독립변인의 조작 효과

수행 정보의 특출성을 조작한 효과는 '당신은 앞서 실시한 세 번의 본시행 중에서 자신의 개인 점수를 몇 번이나 볼 수 있었습니까'와 '당신은 앞서 실시한 세 번의 본시행 중에서 당신과 지각유형이 같은 C형 사람들의 지각유형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피험자들이 자신의 수행 정보의 특출성에 지시문을 정확히 기억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각능력을 판단할 때 개인 점수와 지각유형을 기준으로 본 %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2(수행 정보의 특출성) × 2(내집단의 수행 환류) × 2(개인의 수행 환류)로 변량분석한 결과, 수행 정보의 특출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112)} = 4.85, p < .05, \omega^2 = .42$). 구체적으로 집단정보가 특출한 조건($M = 4.30$)에서 개인 정보가 특출한 조건($M = 3.40$)보다 집단 정보가 자신의 지각능력을 판단할 때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내집단의 수행 수준을 환류해준 조작 효과는 '첫번째 본시행에서 당신은 몇 %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습니

까', '두번째 본시행에서 당신은 몇 %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습니까' 및 '세번째 본시행에서 당신은 몇 %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피험자들이 자신의 내집단 환류에 해당하는 지시문을 정확히 기억하였다. 또한 '당신과 지각유형이 같은 사람들은 당신과 지각유형이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 볼 때 지각능력 점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수행 정보의 특출성)×2(내집단의 수행 환류)×2(개인의 수행 환류)로 변량분석한 결과, 내집단 환류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112)} = 6.41, p < .05, \omega^2 = .02$). 구체적으로 집단성공 조건($M = 5.07$)에서 집단실패 조건($M = 4.35$)보다 자신과 지각유형이 같은 사람들은 지각유형이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볼 때 지각유형별 점수가 더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개인의 수행 수준을 환류해준 조작 효과는 '첫번째 본시행에서 당신은 몇 %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습니까', '두번째 본시행에서 당신은 몇 %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습니까' 및 '세번째 본시행에서 당신은 몇 %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피험자들이 자신의 개인 환류에 해당하는 지시문을 정확히 기억하였다. 또한 '당신과 지각유형이 같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당신 개인의 점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수행 정보의 특출성)×2(내집단의 수행 환류)×2(개인의 수행 환류)로 변량분석한 결과, 내집단 환류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112)} = 454.05, p < .001, \omega^2 = .97$).

구체적으로 개인우수 조건($M = 6.78$)에서 개인실패 조건($M = 2.24$)보다 자신과 지각유형이 같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지각능력 점수가 더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든 피험자들에게 지각유형이 C형이라고 조작하였는데 이 조작에 따라서 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도 달라졌는지 알아보았다. 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은 '나는 현재 이 집단에 속해서 기쁘다, 나는 현재 속한 이 집단에 애착을 느낀다, 나와 함께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다, 내가 현재 속한 이 집단은 나의 지각능력을 잘 반영해 준다, 집단으로 다시 검사를 받게 된다면 나는 현재 이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나는 현재 내가 속한 이 집단의 사람들에게 강한 연대감을 느낀다'와 같은 여섯 문항에 9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평균하여 얻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이 $M = 4.29$ 로 나타나서 피험자들이 자신의 집단에 중간 수준 정도로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

내집단의 성공과 실패, 개인의 우수와 저조 및 수행 정보의 특출성에 따라서 조작한 조건에서 100명을 기준으로 자신의 우수성을 백분위로 응답하여 자기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자기평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평가를 측정하는 3개 문항에 응답한 값을 역산한 후 평균하여 얻었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그림 1에서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표 1. 자기평가의 평균(표준편차)

	집단성공		전체	집단실패		전체	전체
	개인우수	개인저조		개인우수	개인저조		
수행 정보의 특출성							
집단정보 특출	79.96 (3.18)	76.60 (12.81)	78.28 (9.33)	64.47 (11.84)	32.73 (21.98)	48.60 (23.69)	63.44 (23.29)
개인정보 특출	68.47 (21.95)	53.18 (22.48)	60.82 (23.17)	53.29 (17.84)	41.64 (17.22)	47.47 (18.21)	54.14 (21.73)
전체	74.21 (16.48)	64.89 (21.56)	69.55 (19.60)	58.88 (15.92)	37.19 (19.92)	48.03 (20.96)	58.79 (2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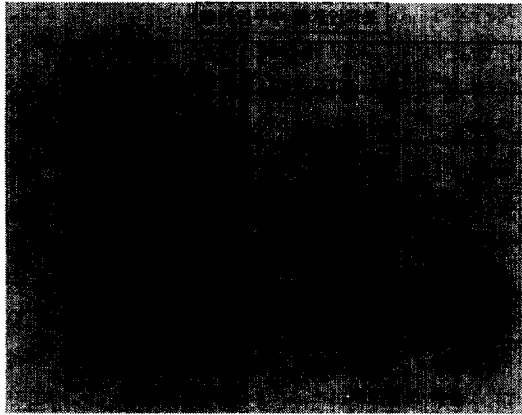


그림 1. 수행 정보의 특출성 조건별로 본 내집단과 개인 수행 환류의 효과

이에 대해서 2(수행 정보의 특출성) × 2(내집단의 수행 환류) × 2(개인의 수행 환류)로 변량분석한 결과, 내집단 수행 환류의 주효과, 개인의 수행 환류의 주효과 및 수행 정보의 특출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변량분석 결과가 더 높았고($F_{(1,112)} = 46.31, p < .001, \omega^2 = .46$), 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즉, 내집단이 실패하였을 때($M = 48.03$)보다 성공하였을 때($M = 69.55$)에 자기평가가 더 높았으며($F_{(1,112)} = 6.66, p < .01, \omega^2 = .06$), 개인 정보가 특출할 때($M = 54.14$) 보다 집단 정보가 특출할 때($M = 63.44$)에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F_{(1,112)} = 8.64, p < .01, \omega^2 = .09$). 그러나 이러한 유

의한 주효과는 유의한 내집단 수행 환류 × 수행 정보의 특출성의 이원 상호작용($F_{(1,112)} = 24.05, p < .001, \omega^2 = .24$)과 수행 정보의 특출성 × 내집단 수행 환류 × 개인의 수행 환류의 삼원상호작용($F_{(1,112)} = 6.41, p < .05, \omega^2 = .06$) 때문에 그 해석이 제한된다. 이를 수행 정보의 특출성 조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 단순상호작용과 집단 수행 정보의 주효과 및 개인 수행 정보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하면 집단이 실패했을 때($M=48.60$)보다 성공했을 때($M=78.28$)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따라서 가설 I-1이 지지되었다. 또한 개인 자신의 수행 정보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행 정보가 특출하면, 자기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집단의 수행 수준과 개인의 수행 수준의 단지 가산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는 집단이 성공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우수($M = 79.96$)하였던 저조($M = 76.60$)하였던 자기평가는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자신은 잘 못하였지만 집단은 뛰어난 경우에 집단의 수행 정보가 특출해지면 집단도 잘하였고 자신도 잘한 경우만큼이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집단이 성공하고 개인은 실패한 경험을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과 비교해보면, 중간 수준인 53.18로서 두 조건간 큰 보인다. 그러나 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우수하였을 때($M = 64.47$) 보다 저조하였을 때($M = 32.73$)에 자기평가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따라서

표 2. 자기평가 자료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값	p 값
수행 정보의 특출성	1	2591.60	2591.60	8.64	0.0040**
내집단환류	1	13889.00	13889.00	46.31	0.0001****
개인환류	1	1998.11	1998.11	6.66	0.0111*
수행 정보의 특출성 * 내집단환류	1	7212.66	7212.66	24.05	0.0001****
수행 정보의 특출성 * 개인환류	1	124.71	124.71	0.42	0.5203
내집단환류 * 개인환류	1	1147.01	1147.00	3.82	0.0530†
수행 정보의 특출성 * 내집단환류 * 개인환류	1	1922.66	1922.66	6.41	0.0127*
오차	112	33588.68	299.89		

† p<.10, * p<.05, ** p<.01, *** p<.001

성공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과 성공한 집단에서 저조한 사람의 자기평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실패한 집단에서 저조한 사람보다 실패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의 자기평가가 더 높아서 가설 I-2가 지지되었다. 이에 더해서 집단이 실패하였으나 개인은 우수하였을 때($M = 64.47$)보다 집단이 성공하였으나 개인은 우수하였을 때($M = 79.96$) 자기평가가 유의하게 더 높아서 가설 I-3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단순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 자신의 수행 정보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행 정보보다 특출하면, 자기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집단의 수행 수준과 개인의 수행 수준이 가산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 수행정보가 특출하면, 개인이 저조하였을 때보다 우수하였을 때 더 자기평가가 높아지고, 집단이 실패하였을 때보다 집단이 성공하였을 때 더 자기평가가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도 잘하였고, 자신이 속한 집단도 뛰어난 집단일 때에 자기평가가 높고($M = 68.47$) 그 다음으로 개인은 잘하였으나 집단은 뛰어나지 못한 경우($M = 53.29$) 또는 집단은 뛰어나지만 개인은 잘 못한 경우($M = 53.18$)에 자기평가가 높으며, 집단도 뛰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도 잘하지 못한 경우($M = 41.64$)에 자기평가가 가장 낮다. 따라서 성공한 집단에서 저조한 사람보다 성공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의 자기평가가 더 높고, 실패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보다 성공한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의 자기평가가 더 높아서 가설 II가 지지되었다.

자기정서

참고로 내집단의 성공과 실패, 개인의 우수와 저조 및 수행 정보의 특출성에 따라 자기정서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초조정서는 강혜자와 한덕용(2000)의 연구처럼 6개 초조정서의 평정치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초조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초조정서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낙담정서도 강혜자와 한덕용(2000)의 연구에서 보고된 6개 낙담정서의 평정치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낙담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의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정적정서도 강혜자와 한덕용(2000)의 8개 낙담정서의 평정치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정적정서가 높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초조정서 경험을 실험 조건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조정서에 대해서 2(수행 정보의 특출성) × 2(내집단의 수행 환류) × 2(개인의 수행 환류)로 변량분석한 결과, 수행 정보의 특출성의 주효과($F_{(1,112)} = 4.46, p < .05, \omega^2 = .11$), 수행 정보의 특출성 × 개인의 수행 환류의 상호작용 효과($F_{(1,112)} = 10.46, p < .01, \omega^2 = .30$) 및 내집단 수행 환류 × 개인 수행 환류의 상호작용 효과($F_{(1,112)} = 8.14, p < .01, \omega^2 = .22$)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의한 수행 정보의 특출성 × 내집단 수행 환류 × 개인의 수행 환류의 삼원상호작용($F_{(1,112)} = 6.83, p < .05, \omega^2 = .18$) 때문에 그 해석이 제한된다. 이를 수행 정보의 특출성 조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는 단순상호작용은

표 3. 초조정서의 평균(표준편차)

	집단성공		전체	집단실패		전체	전체
	개인우수	개인저조		개인우수	개인저조		
수행 정보의 특출성							
집단정보 특출	2.46 (1.22)	3.69 (1.86)	3.07 (1.67)	2.19 (1.33)	3.56 (1.95)	2.87 (1.78)	2.97 (1.71)
개인정보 특출	4.51 (1.73)	2.50 (1.06)	3.51 (1.74)	3.10 (0.69)	4.12 (1.83)	3.61 (1.46)	3.56 (1.59)
전체	3.48 (1.80)	3.09 (1.61)	3.29 (1.70)	2.64 (1.14)	3.84 (1.88)	3.24 (1.66)	3.27 (1.67)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집단의 수행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는 집단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 모두 개인이 우수하였을 때($M = 2.33$)보다 실패하였을 때($M = 3.62$)에 초조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였지만, 집단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 초조정서를 달리 경험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는 단순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즉,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하고 집단이 성공한 경우에는 개인의 우수하였을 때($M = 3.10$) 조건별로 자기평가와 초조정서 간 상관도 알아보았는데 보다 저조하였을 때($M = 4.12$)에 초조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단이 실패한 경우에는 개인이 저조하였을 때($M = 2.50$)보다 우수하였을 때($M = 4.51$)에 초조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자기평가와 초조정서 간 상관을 알아보았는데, 상관계수는 $-.06$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실험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 집단이 실패하고 개인은 우수한 조건과 집단이 실패하고 개인은 저조한 조건에서 상관계수가 각각 $-.62$ 와 $.53$ 으로 유의하였다. 자기평가와 초조정서를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집단이 실패했다는 정보가 특출하고 개인은 우수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100명 중 35등 정도로 평가하고 초조정서는 경미한 정도로 경험하며, 자기를 좋게 평가할수록 초조정서를 덜 경험한다. 그리고 집단이 실패했다는 정보가 특출하고 개인은 저조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100명 중 67등 정도로 평가하고 초조정서를 중간 정도로 경험하며, 자기를 나쁘게 평가할수록 초조정서를 덜 경험한다. 이는 집단 수행 수준이 특출해져서 집단간 비교가 활성화

되었으며 자신이 속한 내집단은 수행 수준이 낮으나 자신은 우수하다면 자기를 좋게 평가할수록 초조정서를 더 경험하지만, 자신이 저조하다면 자기를 나쁘게 평가할수록 초조정서를 덜 경험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낙담정서 경험을 실험 조건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낙담정서에 대해서 2(수행 정보의 특출성) \times 2(내집단의 수행 환류) \times 2(개인의 수행 환류)로 변량 분석한 결과, 수행 정보의 특출성의 주효과($F_{(1,112)} = 9.06$, $p < .01$, $\omega^2 = .18$), 수행 정보의 특출성 \times 집단의 수행 환류의 상호작용 효과($F_{(1,112)} = 21.21$, $p < .001$, $\omega^2 = .47$) 및 집단 수행 환류 \times 개인 수행 환류의 상호작용 효과($F_{(1,112)} = 11.39$, $p < .001$, $\omega^2 = .24$)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집단 정보가 특출한 조건($M = 4.09$)보다 개인 정보가 특출한 조건($M = 4.96$)에서 낙담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의한 수행 정보의 특출성과 집단의 수행 환류의 상호작용 효과때문에 해석이 제한된다. 즉, 개인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 집단이 성공한 조건($M = 4.95$), 개인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 집단이 실패한 조건($M = 4.97$) 및 집단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 집단이 실패한 조건($M = 4.38$)에서는 낙담정서 경험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와 달리 개인 정보가 특출한 경우 집단이 성공한 조건($M = 4.95$)과 집단이 실패한 조건($M = 4.97$)간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집단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는 집단이 성공한 조건($M = 3.81$)에서 유의하게 낙담정서를 덜 경험하였다.

또한 내집단과 개인 수행 환류에 따라서 유의한 상호

표 4. 낙담정서의 평균(표준편차)

	집단성공		전체	집단실패		전체	전체
	개인우수	개인저조		개인우수	개인저조		
수행 정보의 특출성							
집단정보 특출	3.51 (1.28)	4.10 (1.73)	3.81 (1.53)	3.18 (1.69)	5.58 (1.28)	4.38 (1.91)	4.09 (1.74)
개인정보 특출	4.89 (1.88)	5.01 (2.14)	4.95 (1.98)	3.87 (0.92)	6.08 (1.40)	4.97 (1.62)	4.96 (1.79)
전 체	4.20 (1.73)	4.56 (1.97)	4.38 (1.84)	3.52 (1.38)	5.83 (1.34)	4.67 (1.78)	4.53 (1.81)

작용 효과를 보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내집단이 성공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저조하거나($M = 4.56$) 우수하더라도 따라서($M = 4.20$) 낙담정서를 유의하게 달리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집단이 실패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우수하였을 때($M = 3.52$)보다 저조하였을 때($M = 5.83$) 낙담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평가와 정서 경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평가와 낙담정서의 상관을 구했는데, 각 조건에서 얻은 자료를 합쳤을 때 두 측정치의 상관계수는 $-.47$ 로 유의하였다. 각 실험 조건별로 자기평가와 낙담정서 간 상관도 알아보았다.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 집단이 성공하고 개인은 우수한 조건과 집단은 성공하고 개인은 저조한 조건에서 상관계수가 각각 $-.75$ 와 $-.68$ 로 유의하였다. 자기평가와 낙담정서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집단이 성공했으며 개인이 우수하다는 정보가 특출해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100명 중 32등 정도로 평가하고 낙담정서를 중간 수준으로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자기를 좋게 평가할수록 낙담정서를 덜 경험한다. 그리고 집단이 성공했으며 개인이 저조하다는 정보가 특출해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100명 중 47등 정도로 평가하고 낙담정서를 중간 수준으로 경험하며, 자기를 좋게 평가할수록 낙담정서를 덜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정적정서 경험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적정서에 대해서 2(수행 정보의 특출성)×2(내집단의 수행 환류)×2(개인의 수행 환류)로 변량분석한 결과, 수행 정보의 특출성의 주효과($F_{(1,112)} = 4.75, p < .05,$

$\omega^2 = .12$), 수행 정보의 특출성×집단의 수행환류의 상호작용 효과($F_{(1,112)} = 26.46, p < .001, \omega^2 = .49$)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가 특출한 조건($M = 3.90$)보다 집단 정보가 특출한 조건($M = 4.51$)에서 정적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행 정보의 특출성과 집단의 수행 환류의 상호작용 효과 때문에 해석이 제한된다. 즉, 집단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는 집단이 성공한 조건($M = 4.64$)과 실패한 조건($M = 4.38$)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개인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 집단이 실패한 조건($M = 3.69$)보다 성공한 조건($M = 4.11$)에서 정적정서 수준이 더 높았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평가와 정서 경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평가와 정적정서 간 상관을 구했는데, 상관계수는 $.34$ 로 유의하였다. 각 실험 조건별로 자기평가와 낙담정서 간 상관도 알아보았는데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 집단이 성공하고 개인은 우수한 조건과 집단이 성공하고 개인은 저조한 조건에서 상관계수가 각각 $.68$ 과 $.55$ 로 유의하였다. 자기평가와 낙담정서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집단이 성공했으며 개인이 우수하다는 정보가 특출해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100명 중 32등 정도로 평가하고 정적정서를 중간 정도로 경험하며, 자기를 좋게 평가할수록 정적정서를 더 경험한다. 그리고 집단이 성공했으며 개인이 저조하다는 정보가 특출해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100명 중 47등 정도로 평가하고 정적정서를 경미한 정도로 경험하며, 자기를 좋게 평가할수록 정적 정서를 더 경험한다.

표 5. 정적정서의 평균(표준편차)

	집단성공		전체	집단실패		전체	전체
	개인우수	개인저조		개인우수	개인저조		
수행 정보의 특출성							
집단정보 특출	5.18 (1.49)	4.11 (1.63)	4.64 (1.63)	5.18 (2.35)	3.59 (1.27)	4.38 (2.02)	4.51 (1.82)
개인정보 특출	4.79 (1.79)	3.43 (1.14)	4.11 (1.63)	4.58 (0.69)	2.80 (1.41)	3.69 (1.42)	3.90 (1.53)
전 체	4.98 (1.63)	3.77 (1.42)	4.38 (1.63)	4.88 (1.73)	3.20 (1.38)	4.04 (1.77)	4.21 (1.70)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수행 정보가 특출하거나 집단의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 내집단과 자신의 수행 수준에 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자기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개인의 수행 정보가 특출하거나 집단 수행 정보가 각각 특출한 조건에 따라서 내집단과 자신의 수행 수준이 자기평가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집단의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집단과 개인의 수행 수준에 관한 정보가 자기평가에 단순히 가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간 비교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신은 우수하지 못하지만 집단이 뛰어난 조건이면 자신도 우수하고 집단도 뛰어난 조건과 비교해서 자기평가가 높으면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이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이처럼 집단이 뛰어난 때 자기평가에 득을 얻는 현상과 연결되게 집단이 뛰어나지 못한 조건에서는 자기평가에 해를 입는 현상도 나타났다. 즉 자신은 우수하지만 집단이 뛰어나지 못한 조건에서 보인 자기평가 수준보다 자신도 우수하지 못하고 집단도 뛰어나지 못한 조건에서 나타난 자기평가 수준이 매우 낮았다.

특히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 개인은 잘 못하였으나 집단이 잘한 조건에서 얻은 자기평가치 자체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즉 집단과 개인이 모두 성공한 경우에는 중간값 50보다 높은 79.96 정도로 자신을 평가했는데, 개인은 실패하였으나 집단은 성공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76.60 정도로 자신을 평가했다. 따라서 집단이 성공했다는 정보가 특출해지면 개인의 수행 수준보다는 집단의 수행 수준에 의해 자기를 평가하게 되어 개인의 성공보다 집단의 성공에 의해서 자기평가가 더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은 성공하였으나 집단은 실패한 경우에는 50보다는 높지만 76.60보다는 낮은 64.47 정도로 자신을 평가했다. 그리고 집단도 실패하였고 개인도 실패한 조건에서는 32.73으로 50보다 낮게 자신을 평가했다. 따라서 집단이 실패했다는 정보가 특출해지면 개인의 수행 수준보다는 집단의 수행 수준에 의해 자기를 평가하게 되어 개인의 실패보다 집단의 실패에 의해서 자기

평가가 더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가적으로 각 실험 조건에서 경험한 자기정서를 알아보았다. 먼저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 자기정서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는 개인이 실패했을 때보다 개인이 성공하였을 때 초조정서를 덜 경험하였으나, 집단의 수행 수준은 초조정서 수준과 무관하였다. 그리고 낙담정서와 정적정서는 집단의 수행 수준이나 개인의 수행 수준에 의해서 다르게 경험되지 않았다. 또한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집단이 실패한 경우에만 자기평가와 초조정서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따라서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집단이 성공하면 개인의 수행은 저조하더라도 자기평가는 개인이 우수할 때만큼 높지만 초조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집단도 실패하고 개인의 수행도 저조하면 개인 수행이 우수할 때보다 자기를 더 나쁘게 평가하고 초조정서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 특히 집단의 실패 정보가 특출할 때 개인 수행마저 저조하면 자기를 매우 나쁘게 평가하기는 하지만, 이 조건에서는 자기평가가 나쁠수록 초조정서를 덜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상관분석 자료로는 인과관계를 알 수 없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정서는 부가적으로 얻은 자료이므로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장차 집단내 비교와 달리 집단간 비교가 우세한 상황에서 자기정서를 주 종속치로 다루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본 연구의 예측대로 특출해진 개인 수행 정보로 인해서 집단간 비교보다 집단내 비교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는 집단의 수행 수준과 개인의 수행 수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집단이 우수하거나 우수하지 못한 경우 개인 수행 정보에 따라서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집단도 성공하였고 자신도 잘한 경우에 자기평가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집단이나 개인 중 어느 한 쪽만이 성공한 경우, 즉 집단은 성공하였으나 개인은 실패하였거나 집단은 실패하였으나 개인은 성공한 경우에 자기평가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집단도 실패하였고 개인도 실패한 경우에 자기평가가 가장 낮았다.

또한 자기평가의 평정치 자체도 관심을 기울일만하다. 집단과 개인이 모두 성공한 경우에는 중간값 50보다 높은 68.47 정도로 자신을 평정했고, 집단이나 개인 중 어느 한 쪽만 성공한 경우에는 53.18과 53.29 정도로 50과 거의 유사하게 자신을 평정하였으며, 집단과 개인이 모두 실패한 경우에는 50보다 낮은 41.64 정도로 자신을 평정했다. 이 결과를 보면 개인의 수행 정보가 집단의 수행 정보보다 특출해지면 사람들은 이 두 정보에 동등한 가중치를 두어서 자기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 나타난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개인 수행 정보가 더 특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행 정보를 개인의 수행 정보와 동등하게 가중치를 두어서 자기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며, 특히 자신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집단의 성공으로 자기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장은영·한덕웅, 1999; 한덕웅, 1999; 한덕웅·장은영, 2001)에서 사용한 자기고양동기를 측정하여 알아보지 않았지만, 장차 이 조건에서 자기고양동기를 알아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개인적 비교 정보뿐만 아니라 집단 비교 정보도 사용하는지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 자기정서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하고 집단이 성공한 경우에는 개인의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에 초조정서를 덜 경험하였다. 그러나 집단이 실패한 경우에는 개인이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초조정서를 덜 경험하였다. 반면에 집단은 성공하였으나 개인은 저조한 조건과 집단도 성공하였고 개인도 우수한 조건 간 낙담정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은 성공하였으나 개인은 저조한 조건보다 집단도 성공하였고 개인도 우수한 조건에서 정적정서를 덜 경험하였다. 따라서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할 때 성공한 집단에서 저조한 개인은 성공한 집단에서 우수한 개인보다 자기평가가 낮고, 정적 정서를 덜 경험한다. 그러나 낙담정서를 유의하게 다르게 경험하지 않

으며 초조정서는 오히려 더 덜 경험한다. 또한 이 두 조건에서 자기평가와 낙담정서의 상관은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자기평가와 정적정서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하여 집단간 비교보다 집단내 비교가 더욱 활성화된 조건에서는 집단이 성공하면 자기를 좋게 평가할수록 낙담정서를 덜 경험하고 정적정서를 더 경험한다. 그러나 낙담정서와 달리 초조정서는 자기평가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신의 수행 수준이 저조할 때 초조정서를 매우 낮게 경험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은 저조한데 비해 집단이 뛰어난 조건에서 집단내 비교를 통해 상향비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조정서를 가장 덜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 연구(한덕웅·장은영, 2001)에서 개인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상향비교를 예상할 때에 초조정서를 덜 경험한 점과 일관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 역시 자기정서를 주 종속치로 다루어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장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 주로 다룬 조건들 가운데 개인은 우수하지만 집단은 실패한 조건과 개인도 우수하고 집단도 성공한 조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는 개인은 우수하지만 집단은 실패한 조건보다 개인도 우수하고 집단도 성공한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관되는 내용으로서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우물안 개구리 효과와 상반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역시 선행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비교가 이루어진 상황을 다루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은 우수하지만 집단은 실패한 조건이거나 개인도 우수하고 집단도 성공한 조건에서 각각 자기평가가 어떻게 나타날지 검증한 본 연구 결과와 이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은 집단간 비교가 가장 활성화된 상황으로서 집단 수행 정보로 더 큰 영향을 받아서 개인은 우수하지만 집단은 성공한 조건보다 개인도 우수하고 집단도 성공한 조건에서 자기평

가가 더 높다. 그리고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에서도 집단간 비교가 집단내 비교보다 활성화되었지만, 집단간 비교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은 우수하지만 집단은 성공한 조건보다 개인도 우수하고 집단도 성공한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더 높다. 반면에 이전 연구들에서 다른 바와 같이 집단간 비교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집단의 수행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우수하지만 집단은 실패한 조건보다 개인도 우수하고 집단도 성공한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더 낮다.

본 연구의 모든 조건들에서 얻은 자기평가의 백분위는 전체 평균이 58.59로 제공된 환류 정보의 평균인 50.00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기를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 결과와 일관되는 내용이다(Weinstein, 1980; Weinstein, 1983; Weinstein & Lachendro, 1982).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를 위한 시사점

본 연구에서 알아본 자기평가는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평가하는 영역은 능력뿐만 아니라 외모, 습관 및 태도 등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자기관련 영역은 특히 변화가능성이나 통제가능성에서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인의 수행 수준과 내집단의 수행 수준에 관한 정보 중 어느 것이 특출한가에 따라서 자기평가에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 정보가 개인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내집단의 수행 환류는 개인의 수행 환류보다 전집을 더욱 잘 대표하는 정보로 지각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집단에서 개인의 환류 백분위와 다른 집단과 비교한 내집단의 상대적 백분위로 환류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러한 대안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수행 수준이 특출하거나 내집단의 수행 수준이 특출한 조건만을 다루었으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이 두 수행 수준이 모두 특출하게 조작되지 않은 조건이나 두 수행 수준이 모두 특출한 조건에서 얻은 결과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집단 수행 정보와 개인의 수행 정보를 자기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때 문화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문화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경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집단 수행이 자기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래 연구에서 직접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다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으로 각 조건마다 경험되는 자기정서를 알아보았는데, 집단 수행과 개인 수행이 모두 제공되고 두 정보 중 어느 정보가 특출하느냐에 따라 자기정서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초조정서와 낙담정서 및 정적정서는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경험되지 않는 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정서 측정치를 주 종속치로 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재검증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수행 정보의 특출성 효과는 이전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특출성이 높아진다는 Fazio, Sanbonmatsu, Powell 및 Kardes(1986)의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특출성은 정보의 제공 빈도와 제공 순서로 조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두 번 수행 정보를 받되 제시 순서가 첫번째와 세번째로 되어서 최초정보 효과와 최종정보 효과를 모두 보이도록 조작되었다. 조작점점을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질문한 문항은 지각능력을 판단할 때 개인 점수가 집단 점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것이었다. 그리고 개인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과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한 조건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수행 정보의 특출성을 정보를 접한 횟수로 조작하였지만 피험자들에게 단순한 접촉빈도 이상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 지각으로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특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반응시간 측정 방법 등으로 조작 효과를 병행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물안 개구리(frog-pond 또는 big-fish-little-pond) 효과와 관련하여 논할 수 있다. 이 효과는 내집단이 뛰어나지 못하면 우수한 개인은 내집단과 상대적 비교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매우 높아지게 되어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내집단이 뛰어나면 우수한 개인은 내집단과 상대적 비교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게 되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우물안 개구리 효과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집단 수행 정보가 특출하게 되어서 집단간 비교를 경험하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완화되어서 실제의 자기를 반영하는 자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혜자 · 한덕용(2000). 정서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자기가치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7권 1호, 51-67.
- 장은영 · 한덕용(1999). 비교 대상의 선택에서 환류유형, 비교속성 및 통제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권 2호, 201-217.
- 한덕용(1999). 사회비교의 목표와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 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권 2호, 311-329.
- 한덕용 · 장은영(2001).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성공/실패에 따른 자기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권 1호, 109-123.
- Davis, J. A.(1966). The campus as a frog-pond;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to career decisions of college 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 17-31.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March, H. W.(1987).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280-295.
- McFarland, C., & Buehler, R.(1995). Collective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Frog-pond effect in reactions to performance feedbac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 1055-1070.
- Morse, S., & Gergen, K. J.(1970). Social comparison in the classroom: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148-156.
- Taylor, A., Wayment, H. A., & Carillo, M.(1993).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Motivation & Cognition*. The Guilford Press.
- Weinstein, N. D.(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einstein, N. D.(1983). Reducing unrealistic optimism about illness susceptibility. *Health Psychology*, 2, 11-20.
- Weinstein, N. D., & Lachendro, E.(1982). Egocentrism as a source of unrealistic optim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195-200.

Effect of Ingroup and Personal Performance Feedback upon Self Evaluation

Doug-Woong Hahn and Eun-Young Jang

Dep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

This study examined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salience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group performance feedback and personal performance feedback on self evaluation. A 2(salience of performance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s salient, ingroup information is salient) \times 2(ingroup performance feedback: success, failure) \times 2(personal performance feedback: superior, inferior) complete factorial design was used in this experiment. 120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8 experimental conditions. In condition that personal information was salient, subjects were given personal performance feedback twice and group performance feedback once. In condition that group information was salient, subjects were given personal performance feedback once and group performance feedback twi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ypothesized three-way interaction was confirmed. When group performance feedback was salient, subjects in success group evaluated self performance higher than failure group. And superior person in success group did not evaluate self performance higher than inferior person in success group and superior person in failure group evaluated self performance higher than inferior person in failure group. Additionally superior person in success group evaluated self performance higher than superior person in failure group. When personal performance feedback was salient, superior person in success group evaluated self performance higher than inferior person in success group and superior person in failure group evaluated self performance higher than inferior person in failure group.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group success or failure influences self evaluation than personal success or failure does in Korea. Additionally experience of self-relevant affects was examined in each experimental condition.

Keywords: social comparison, personal performance, ingroup performance, self evaluation, self-relevant affect

원고 접수: 2001년 1월 10일
심사 통과: 2001년 2월 7일